

##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김 희 경

통일부 하나원

신 현 균<sup>\*</sup>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 입국 초기 단계와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비교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9년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교육생 282명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2명이었다. 두 집단 간에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의 9개 심리적 증상 척도(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 음주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심리적 증상별로 성별과 연령, 거주 상태의 주효과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주 문제가 많았다.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사회 거주자가 하나원 교육생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와 음주 문제가 많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신증은 성별과 거주 상태, 연령과 거주 상태, 또는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단순효과 분석 결과, 20대와 40대는 하나원과 지역사회 거주자 간에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 30대는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가 더 높았다. 여성은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우울감이 높았지만, 남성은 지역사회 거주자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20대와는 달리 30대 이상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다. 남성의 정신증 수준은 하나원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하나원에 비해 지역사회 거주자의 정신증 수준이 높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과 치료적 개입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심리 증상, 성별, 연령,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 교신저자: 신현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Tel: 062-530-2658, E-mail: shk2004@chonnam.ac.kr, Fax: 062-530-2659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 말에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및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시기와 대상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국내 입국 전, 국내 입국 초기 단계,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단계 과정에서 남성이나 여성, 혹은 연령에 따른 심리적 문제나 적응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국내 입국 전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난민들이 탈출 전에 경험한 충격과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많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Masuda, Lin, & Tazuma, 1980; Westermeyer, Vang, & Lyfong, 1983), 북한이탈주민 역시 탈북 전 북한 거주 당시에 사상성을 의심받거나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PTSD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우택, 2004). 탈북 과정 중에 경험한 발각에 대한 두려움, 경비병이나 공안에 체포되어 교화소나 감옥에 투옥되는 것 등도 이들의 대표적인 외상 사건이다(강성록, 2000).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56%가 PTSD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Lee, Lee, Chun, Lee, & Yoon, 2001), 남한 입국을 신청하고 중국 내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9.2%가 PTSD를 보였고, 불안, 우울, 대인관계 갈등 및 차별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고하였다(유정자, 2006). 특히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생존을 위해 조선족이나 한족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과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다(김태현, 노치영, 2003;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이라는 사회적응교육 기관에 입소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남한 사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29% 이상이 임상적으로 우울한 상태였으며(한인영, 2001), 30~40%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였고(전우택, 2004), 탈북 여성의 절반 이상이 우울이나 불안, 피해의식과 의심 등으로 인해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다(김희경, 오수성, 2010).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50대가 10대나 20대에 비해 건강염려증이 심하였으며, 가족 동반 입국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반사회성, 정신분열증, 경조증 수준이 높았다(김현아, 전명남, 2004). 또한 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불안, 적대감, 정신증 수준이 높았으며, 이 중 적대감은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쉽게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빛내, 김희경, 2010).

하나원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이전의 정신건강 문

제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은 외상은 정신건강과 남한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노대균, 2001; 엄태완, 2004; 홍창형 등, 2006), PTSD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낮았고(서주연, 2006), 삶의 질이 좋지 못하였다(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탈북 여성은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빠른 의식 변화를 보이지만(전우택 등, 2006), 회피와 마비, 과각성과 같은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고(박철옥, 2007), 신체 증상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노대균, 2001),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와의 갈등,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 경직된 의사 소통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였다(김미정, 정계숙, 2007; 박미석, 이종남,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홍은주, 2003). 이에 비해 탈북 남성의 알콜 의존 비율은 55%로 여성의 27% 보다 훨씬 높았다(김연희, 2006).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에 관한 종단적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3년 동안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우울 수준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이러한 우울 수준에서의 남녀 차이는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사라졌지만, 불안 수준은 여성이 더 높았다(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이와는 달리, 남한에 입국한지 1년 내외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율은 27.2%에서 3년 뒤에 4.0%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홍창형 등, 2006), 외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졌다(조영아 등, 2005).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문화적응 스트레

스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비교적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희, 2006; 엄태완, 2004; 이경희, 배성우, 2006; 조영아 등, 2009).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남한 사회 정착 전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초기 단계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들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다 심리적 문제가 비교적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입국 초기 단계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분 확인을 위해 힘든 조사 과정을 거친 직후이며, 취업이나 진로, 거주지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남한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

외상 경험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 외에도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Lavik, Laake, Hauff, & Solberg, 1999)이나 연령(Buchwald, Manson, Dinges, Keans, & Kinzie, 1993;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Rumbaut, 1989; Westermeyer, Neider, & Callies, 1989), 교육 수준(Hermansson, Timpka & Thyberg, 2002; Lavik, Hauff, Skrondal, Solberg, 1996), 취업 여부(Beiser, Johnson & Turner, 1993; Chung & Kagawa-Singer, 1993) 등이 난민의 정

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민 연구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의 결과들은 상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지만(김미령, 2005; 조영아 등, 2005), 연령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김연희, 2006; 이경희, 배성우, 2006; 조영아 등, 2009).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노대균, 2001; 이경희, 배성우, 2006), 그러나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일부 영역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김현아, 전명남, 2004),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한인영, 2001).

가족과의 동거는 일종의 지지망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김연희, 2006; 이경희, 배성우, 2006; 조영아 등, 2009),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동반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가 상충되고 있다(김현아, 전명남, 2004; 한인영, 2001). 직업이 없는 경우 우울 수준이 더 높았지만(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이경희, 배성우, 2006), 교육 수준과 우울 수준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노대균, 2001; 조영아 등,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내 입국 초기 단계와 지역사회 적응 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양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이 많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의 정신건강 상태는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개입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착 전후에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입국 초기 단계와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주요한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사회 정착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시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정착 전인 국내 입국 초기 단계와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의 영향력이 포함된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즉, 전자의 연구들은 하나원 교육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자의 연구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자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일부 종단적 연구들은 하나원을 퇴소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하나원 교육생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

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러 심리적 증상들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심리적 증상들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표본을 선정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하나원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총 516명이었다. 그 중 연령 표기 등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32명을 제외하고 총 4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하나원 교육생은 282명으로서, 2009년에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 응교육을 받은 남성 97명(34.4%), 여성 185명(65.6%)이었다.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2명으로서, 2008년 12월 말의 하나원 입퇴소 현황(통일부, 2008)을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 비율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이 각각 23명, 27명, 22명, 3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7명(34.5%), 30대 173명(35.7%), 40대 이상이 144명(29.7%)이었다.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17명(3.4%), 고등중학교 졸업 335명(69.2%),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이 123명(25.5%)이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197명(40.7%)이었으며, 기혼 145명(30%), 미혼 152명(31.4%), 동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거주 상태	하나원 분원(남)	97	20.0
	하나원 본원(여)	185	38.2
	서울, 경기	100	20.6
	인천	23	4.8
	충청	27	5.6
	전라	22	4.5
	경상	30	6.2
성	남	156	32.2
	여	328	67.8
연령대	20대	167	34.5
	30대	173	35.7
	40대 이상	144	29.7
학력	고등중 이하	17	3.4
	고등중	335	69.2
	고등중 이상	123	25.5
	결측값	9	1.8
가족동거 여부	함께 거주	197	40.7
	따로 거주	271	56.0
	결측값	16	3.3
결혼상태	기혼	145	30.0
	미혼	152	31.4
	이혼 및 사별	81	16.7
	동거	87	18.0
	별거	4	0.8
	결측값	15	3.1
	서비스직	14	2.9
직업	농사	23	4.8
	사무직	34	7.0
	자영업	7	1.4
	기술직	29	6.0
	가사	56	11.6
	노동자	107	22.1
	무직	62	12.8
	기타	59	12.2
	교사	10	2.1
	군인	11	2.3
종교	학생	49	10.1
	결측값	23	4.8
	없음	176	36.4
	불교	34	7.0
	기독교	214	44.2
기타	천주교	51	10.5
	기타	9	1.9

거 87명(18%), 이혼 및 사별이 81명(16.7%)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214명(44.2%), 없음 176명(36.4%), 천주교 51명(10.5%), 불교 34명(7.0%) 순이었다.

## 도구

###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현균, 임지영, 그리고 김희경(2009)이 개발한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개의 하위 척도(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와 2개의 보충 척도(가족 문제, 음주 문제) 등 9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84문항이고, 3점 척도(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척도는 각각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점~26점이다. 우울과 신체화 척도는 각각 10문항이며, 점수 범위는 0점~20점이다. 대인 예민 척도는 9문항으로 0점~18점까지이며, 분노 척도는 7문항으로 0점~14점, 정신증 척도는 5문항에 0점~10점까지이다. 가족 문제 척도는 7문항으로서, 0점~14점까지이며, 음주 문제 척도는 10문항이고, 점수 범위는 0점~16점(음주 횟수와 주량을 묻는 두 문항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이다. 총점은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인 지표로서, 점수 범위는 0점~16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내

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외상 후 스트레스 .86, 불안 .88, 우울 .81, 신체화 .83, 대인 예민 .74, 분노 .79, 정신증 .68, 가족 문제 .71, 음주 문제 .68, 그리고 총점은 .96이다.

## 자료 수집 절차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교육생의 경우 본 연구진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조사원을 선정하여 검사 실시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 내용에는 검사의 목적, 실시 절차,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 원칙 등이 포함되었고, 검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을 해당하였으며, 검사가 완료된 후 응답자를 무선 추출하여 전화 면접을 통해 성실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였으며, 조사원과 응답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였다.

## 자료 분석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가족 동거 여부, 종교, 직업) 및 거주 상태(하나원 교육생 대 지역사회 거주자)에 따른 심리적 증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 검증을 통해 사후비교 하였다.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 상태의 이원 혹은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증상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 결혼 상태, 가족 동거 여부, 종교, 직업 등에 따른 심리 증상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학력  $F(5, 469) < 1, ns$ ; 결혼 상태  $F(5, 463) = 1.69, ns$ ; 가족동거 여부  $F(2, 463) < 1, ns$ ; 종교  $F(4, 454) < 1, ns$ ; 직업  $F(11, 449) = 1.79, ns$ . 성별과 연령, 거주 상태에 따른 심리적 증상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 변인들에 따른 심리적 증상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 결과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음주 문제, 총점 척도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472) = 12.21, p < .001$ ;  $F(1, 472) = 8.71, p < .01$ ;  $F(1, 472) = 10.22, p < .001$ ;  $F(1, 472) = 12.94, p < .001$ ;  $F(1, 472) = 7.85, p < .01$ ;  $F(1, 472) = 35.33, p < .001$ ;  $F(1, 472) = 6.48, p < .05$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으며,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인 지표인 총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음주 문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의 주효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총점에서 유의미하였다, 각각  $F(2, 472) = 6.50, p < .001$ ;  $F(2, 472) = 6.49, p < .01$ ;  $F(2, 472) = 5.56, p < .01$ ;  $F(2, 472) = 5.71, p < .05$ ;  $F(2, 472) = 5.56, p < .01$ . 사후비교 결과,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심하였고, 30대와 40대의 차이는 없었다. 이에 비해 분노 수준은 30

대가 20대와 4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 상태의 주효과는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 음주 문제, 총점 척도에서 유의미했다, 각각  $F(1, 472) = 9.40, p < .01$ ;  $F(1, 472) = 8.48, p < .01$ ;  $F(1, 472) = 15.60, p < .001$ ;  $F(1, 472) = 13.90, p < .001$ ;  $F(1, 472) = 20.85, p < .001$ ;  $F(1, 472) = 13.27, p < .001$ . 지역사회 거주자가 하나원 교육생보다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수준이 높았고, 가족 문제와 음주 문제가 더 많았으며, 전반적인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더 심각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증상별로 성별과 연령, 거주 상태의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의 경우, 연령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각각  $F(2, 472) = 4.27, p < .05$ ;  $F(2, 472) = 4.39, p < .05$ . 우울에서는 성별과 거주 상태, 연령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472) = 5.16, p < .05$ ;  $F(2, 472) = 4.67, p < .05$ . 정신증에서는 연령과 거주 상태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 성과 연령, 거주 상태의 삼원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각각  $F(2, 472) = 3.57, p < .05$ ;  $F(2, 472) = 5.73, p < .01$ . 총점에서는 성별과 거주 상태, 연령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472) = 4.01, p < .05$ ;  $F(1, 472) = 3.75, p < .05$ .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과 연령, 거주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해 그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 2와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의 경우, 연령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20대와 40대는 하나원 교육생과 지역사회 거주자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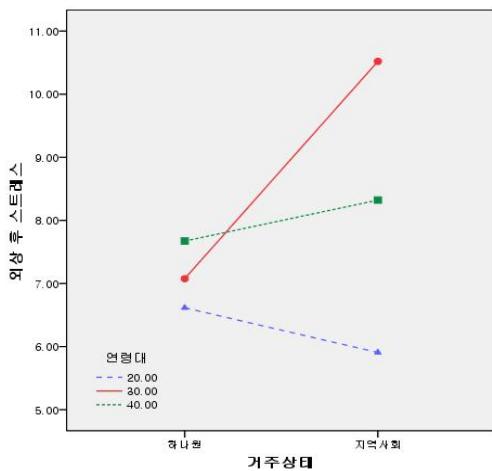


그림 1.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령×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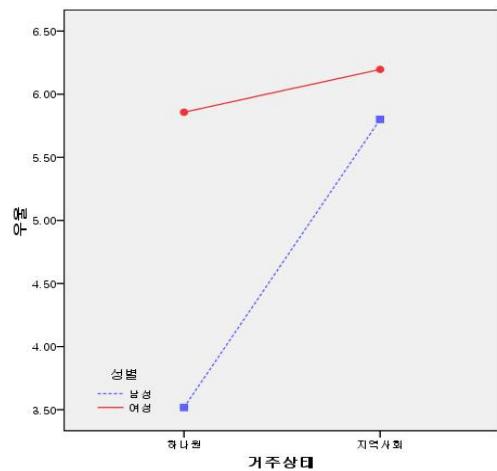


그림 3. 우울에 대한 성별×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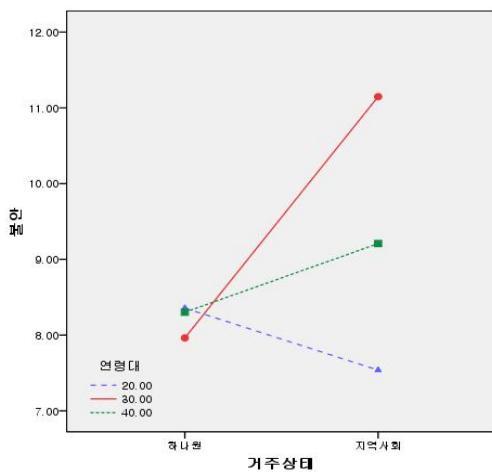


그림 2. 불안에 대한 연령×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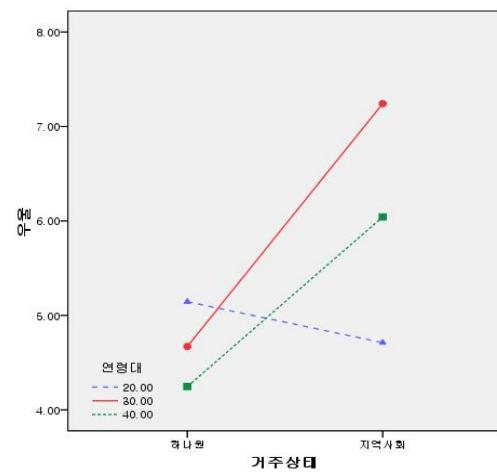


그림 4. 우울에 대한 연령×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모두  $F(1, 478) < 1$ , ns. 그러나 30대의 경우, 하나원 교육생보다 지역사회 거주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각  $F(1, 478) = 3.69$ ,  $p < .05$ ;  $F(1, 478) = 4.30$ ,  $p < .05$ .

우울 증상은 성별과 거주 상태, 연령과 거

주 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 4와 같다. 성별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여성은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우울감이 높았지만( $F(1, 480) < 1$ , ns), 남성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가 더 우울했다,  $F(1, 480) = 12.29$ ,  $p < .001$ . 또한 20대는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우울감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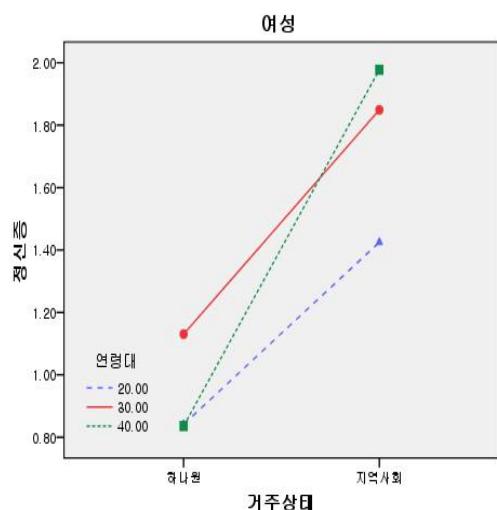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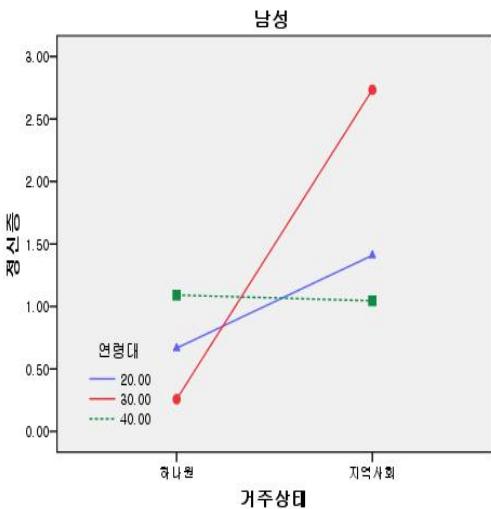


그림 5. 정신증에 대한 성별×연령×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었지만( $F(1, 478) < 1, ns$ ), 30대와 40대는 지역사회 거주자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각각  $F(1, 478) = 5.27, p < .05$ ;  $F(1, 478) = 5.86, p < .05$ .

정신증은 성별과 연령, 거주 상태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는데, 단순효과 분석 결과, 남성은 하나원에서는 연령에 따라 정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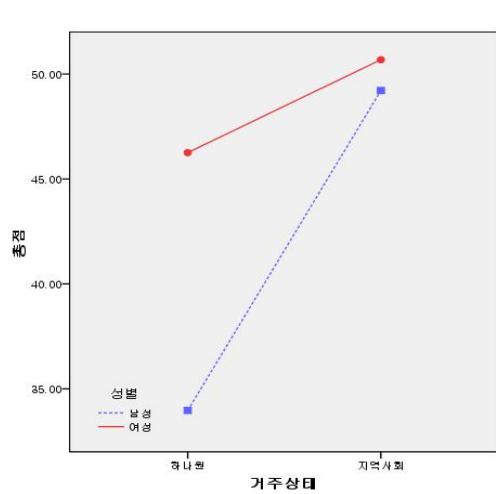


그림 7. 총점에 대한 연령×거주 상태의 상호작용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 $F(2, 472) = 2.72, ns$ ), 지역사회에서는 차이를 보였고( $F(2, 472) = 3.65, p < .05$ ), 특히 30대 남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여성은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모두 하나원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정신증 수준이 높았지만, 하나원과 지역사회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각각  $F(2, 472) < 1, ns$ ;

$F(2, 472)=1.96, ns$ (그림 5).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 지표인 총점의 경우, 성별과 거주 상태, 연령과 거주 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 7과 같다. 단순효과 분석 결과, 여성은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심리적 증상을 많이 보인데 비해  $F(1, 480)=1.87, ns$ , 남성은 하나원보다 지역 사회에서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F(1, 480)=14.45, p<.001$ . 또한 20대는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심리적 문제가 적었지만  $F(1, 478)<1, ns$ , 30대 이상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각각  $F(1, 478)=6.54, p<.05$ ;  $F(1, 478)=5.52, p<.05$ .

##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증상들을 비교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증상 점수들의 차이와 문제 영역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심리적 증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더 높았다. 특히 우울감, 신체화 증상,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와 음주 문제는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더 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달랐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 신체화 증상, 대인 예민성 등이

유의하게 높지만, 20대에 비해 30대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30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에게서 뚜렷하게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27.2%에서 3년 이내에 4.0%로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홍창형 등, 2006)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성별에 따라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이숙영, 2005)와도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회피와 마비, 과각성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며(박철옥, 2007), 29세 이하의 청년층에 비해 30~49세의 장년층의 외상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강성록, 2000)와는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20대에 비해 30대 이상이 PTSD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대는 연령대의 특성상 여러 번의 시행착오나 좌절을 겪더라도 남한 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취업이나 진학 등을 통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30대 이상의 연령층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 문제, 가족 부양의 부담감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증상의 경우, 여성은 국내 입국 초기 단계인 하나원이나 지역사회 모두에서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던 것에 비해, 남성은 하나원에서는 여성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하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모두 우울 수준이 낮았지만, 30대와 40대의 우울 수준은 하나원 교육생보다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에서 뚜렷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에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없지만 (한인영, 2001),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남성의 우울 수준이 뚜렷하게 증가된다는 연구(조영아 등, 2005)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김미령, 2005; 조영아 등,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이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의 우울 수준이 높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원 과는 달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의 문제가 부각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은 하나원에 거주할 때부터도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탈북 여성의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김태현, 노치영, 2003; 문숙재 등, 2000)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 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한 직후 조선족이나 한족에게 팔려가는 경우가 흔하고, 이들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인권 유린과 멸시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을 경

험하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들의 배우자 문제는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이어져 중혼이나 동거로 인한 갈등,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영아, 전우택, 2005). 선행연구나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할 때 탈북 여성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은 국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스트레스 및 그에 따른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증의 경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거주 상태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는데, 여성은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의 정신증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20대나 40대는 하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증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30대의 정신증 수준은 하나원에 비해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에서 뚜렷하게 더 높았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의 정신증적 증상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론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의 경우, 정신증 척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심리적 증상 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지역사회 거주 30대 남성의 사례수가 15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이 표본의 특성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심리적 증상 영역들 대부분에서 탈북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인데 비해, 음주 문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가 더 많았다. 이는 하나원에서 알콜 섭취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 거주 탈북 남성들의 음주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알콜 의존 비율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5배~10배에 이르고,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알콜 의존 비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연희, 2006)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탈북 남성의 우울감이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남성보다 뚜렷하게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자가치료적(self-medication) 성격의 알콜 섭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음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나 심리적 증상들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이, 그리고 하나원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이상의 여성은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리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정착 단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거주 상태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실제 비율을 반영한 표집을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타당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별, 연령 및 거주 상태와 관련된 심리 증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인 어려움의 원인 및 악화 기제를 규명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향후 이들의 적응을 돋는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심리적 증상을 설명하는 변량은 그리 크지 않았고, 하나원 교육생과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3국 체류기간이나 지역사회 정착기간, 남한에서의 재교육 등과 같은 변인들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및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완화시켜주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서 생활 스트레스나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특성이나 내적, 외적 자원, 개인적 경험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합한 개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하나원 교육생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증상들을 횡단적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화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추이 및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와 같이 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입국 단계에서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찰과 추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상도 성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 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평균 비교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및 거주 상태에 따라 심각한 심리 증상을 보이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 및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치료적 제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성록 (2000). 탈북자들의 외상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미정, 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88.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4), 149-180.
-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 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1(12), 229-243.
- 김현아, 전명남 (2004).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269-275.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3-74.
- 박철옥 (2007).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용서, 경험 회피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 임지영, 김희경 (2009). 북한이탈주민 심리상태 측정 도구 개발.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숙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과 남한 내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북한, 탈북과정, 남한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우택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서승원 (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 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3), 252-268.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최빛내, 김희경 (2010).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차이. *한국임상심리학회 논학술대회 논문집*, pp. 299-300.
- 통일부 (2008). *하나원 내부 자료*.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홍은주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창형, 유정자, 노영아, 엄진섭, 구현지, 서승원, 안은미, 민성길, 전우택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1), 49-56.
- Beiser, M., Johnson, P. J., & Turner, R. J. (1993).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ological Medicine*, 23(3), 731-743.
- Buchwald, D., Manson, S. M., Dinges, N. G., Keans, E. M., & Kinzie, D. (1993).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established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General International Medicine*, 8(2), 76-81.
- Chung, R. C., & Kagawa-Singer, M. (1993). Predica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5), 631-639.
- Hermannsson, A. C., Timpka, T. & Thyberg, M. (2002). The mental health of war-wounded refugees; An 8-year follow-up.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2), 374-380.
- Hinton, W. L., Tiet, Q., Tran, C. G.,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 Lavik, N. Y., Hauff, E., Skrondal, A., & Solberg, P. (1996). Mental disorder among refugees and the impact of persecution and exile: Some findings from and outpatient popul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9(6), 726-732.
- Lavik, N. Y., Laake, P., Hauff, E., & Solberg, P. (1999). The use of self reports in psychiatric studies of traumatized refugees: Validation and analysis of HSCL-25.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3(1), 17-20.
- Lee, Y., Lee, M. K., Chun, K. H., Lee, K. Y., & Yoon, J. S. (2001).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3), 225-229.
- Masuda, M., Lin, K. M., & Tazuma, L. (1980).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II. Life change and perceptions of life ev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4), 447-450.
- Rumbaut, R. G. (1989). Portraits, patterns and predictors of refugee adaptation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D. W. Haines(Ed). *Refugees and immigrants: Cambodians, Laotians and Vietnamese in America* (p.138-190).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Westermeyer, J., Neider, J., & Callies, A. (1989). Psychosocial adjustment Hmong refugees during their first decade in the United Stat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3), 132-139.
- Westermeyer, J., Vang, T. F., & Lyfong, G. (1983). Hmong refugees in Minnesota: Characteristics and self perceptions. *Minnesota Medicine*, 66, 431-439.

1차원고접수 : 2010. 07. 08.

최종게재결정 : 2010. 10. 25.

## **Psychological symptoms before and after the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Hee Kyung Kim**

Ministry of Unification

**Hyun-Kyu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initial stage(Hanawon sample: 282) and liv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Community sample: 202)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age. The scores of 9 subscales(Post Traumatic Stress, PTS; Anxiety, ANX; Depression, DEP; Somatization, SOM; Interpersonal Sensitivity, IS; Anger, ANG; Psychosis, PSY; Family Problem, FP; Alcohol Problem, AP) of BPSI-NKR(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were compared across the settlement stage(Hanawon sample vs Community sample), gender and age. As a result of MANOVA, main effects of gender, age, and settlement stage on the several scales were significant. Female had the higher scores on PTS, ANX, DEP, SOM, IS scales than male, male had the **higher** scores on AP scale than female. 30s and 40s had the higher scores on PTS, SOM, IS, ANG scales than 20s, and Community sample had the higher scores on DEP, SOM, ANG, PSY, FP and AP scales than Hanawon sampl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settlement stage, age×settlement stage, and gender×age on PTS, ANX, DEP, PSY scales were significant. Analysis of simple main effect showed that 20s and 40s had no difference on PTS and ANX scores, but 30s educated in Hanawon had th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at scales than Community sample. Female showed high scores on DEP scale regardless of the settlement stage, but male living in community had the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Hanawon sample. 20s showed low scores on DEP scale both Hanawon and Community sample, in the case of over the 30s living in community showed higher scores than Hanawon sample. As regards PSY scale, male presented the similar level in Hanawon according to their age, but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in community. Female in Community sample showed higher score than Hanawon sampl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age. Based on these result, therapeutic approach for North Korean Refugees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Psychological symptom, Gender, Age, BPSI-NKR*

부록 1. 성별, 연령별, 거주 실태별 심리 증상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	거주 상태	사례수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	기독 문체	음주 문체	총점
20대	하나원	44	5.08(4.37)	6.72(4.72)	3.75(3.11)	4.00(3.54)	4.70(3.36)	2.14(2.35)	0.67(1.19)	3.25(2.33)	1.93(2.74)	3.25(3.10)	
	지역사회	22	4.89(4.00)	6.17(3.49)	4.30(4.18)	4.41(3.69)	4.98(3.63)	3.18(2.74)	1.41(1.79)	4.45(2.81)	3.50(3.49)	3.72(2.13)	
	전체	66	5.00(4.22)	6.56(4.33)	3.95(3.48)	4.19(3.56)	4.79(3.43)	2.47(2.52)	0.91(1.45)	3.65(2.54)	2.45(3.08)	3.34(2.95)	
30대	하나원	31	4.97(3.90)	6.53(4.79)	3.52(2.58)	4.87(3.65)	5.45(2.86)	2.42(2.22)	0.78(0.63)	2.86(2.81)	2.68(2.76)	3.35(2.13)	
	지역사회	15	11.54(7.99)	12.33(8.17)	8.08(6.79)	8.40(6.34)	8.35(5.05)	5.13(4.78)	2.72(2.71)	4.98(3.28)	4.38(3.13)	6.50(4.34)	
	전체	46	7.11(6.29)	8.42(6.60)	5.01(4.83)	6.02(6.92)	6.39(5.91)	3.30(3.47)	1.06(1.98)	5.33(3.10)	3.23(3.10)	4.44(3.91)	
40대	하나원	22	6.90(3.85)	7.53(4.13)	3.28(3.31)	4.45(2.90)	5.76(3.78)	1.48(1.87)	1.00(1.38)	3.44(2.91)	2.54(2.34)	3.64(2.48)	
	지역사회	22	6.95(4.66)	8.27(4.91)	5.01(3.97)	6.41(4.94)	5.73(4.66)	2.32(2.93)	1.05(1.56)	4.93(3.29)	4.14(3.40)	4.45(3.40)	
	전체	44	6.79(4.23)	7.90(4.58)	4.15(3.72)	5.42(4.13)	5.77(4.08)	1.90(2.47)	1.07(1.45)	4.03(3.13)	2.34(2.99)	4.03(2.65)	
50대	하나원	37	5.35(4.11)	6.38(4.67)	3.57(2.97)	4.42(3.43)	5.18(3.31)	2.07(2.21)	0.65(1.13)	3.16(2.61)	2.34(2.66)	3.35(2.67)	
	지역사회	59	7.39(6.00)	8.52(5.92)	5.52(5.04)	6.17(5.10)	6.13(4.66)	3.56(3.55)	1.61(2.07)	4.62(3.07)	3.96(3.43)	4.72(3.88)	
	전체	156	6.11(4.99)	7.47(5.22)	4.31(3.99)	5.08(4.21)	5.54(5.80)	2.55(2.85)	1.00(1.62)	3.74(2.87)	2.93(3.07)	3.87(2.51)	
60대	하나원	61	8.15(5.60)	9.59(5.03)	6.56(3.72)	6.22(4.29)	6.80(5.63)	2.49(2.55)	0.84(1.21)	4.38(2.94)	0.84(1.48)	4.62(2.25)	
	지역사회	40	6.98(6.12)	8.90(6.09)	5.13(4.59)	6.00(5.23)	6.09(5.77)	2.30(3.02)	1.42(2.01)	4.33(3.37)	1.38(2.74)	4.27(3.05)	
	전체	101	7.68(5.81)	9.56(5.47)	5.98(4.12)	6.17(4.66)	6.52(5.68)	2.4(2.73)	1.07(1.59)	4.46(3.10)	1.03(2.08)	4.46(2.12)	
70대	하나원	68	9.19(5.47)	9.40(5.41)	5.88(3.48)	7.42(4.57)	7.73(5.25)	2.82(2.61)	1.12(1.68)	4.08(3.30)	1.38(1.99)	4.95(2.49)	
	지역사회	58	9.50(7.80)	9.98(6.73)	6.35(5.80)	8.08(5.91)	7.34(4.69)	3.53(4.12)	1.82(2.31)	4.53(3.18)	2.34(4.01)	5.31(3.78)	
	전체	127	9.39(6.61)	9.66(6.09)	6.08(4.67)	7.77(5.21)	7.55(5.96)	3.14(3.39)	1.46(2.02)	4.29(3.24)	1.82(3.11)	5.16(3.48)	
80대	하나원	55	8.85(6.03)	9.07(5.55)	5.21(3.61)	6.42(4.42)	6.66(3.89)	1.80(2.08)	0.84(1.29)	3.64(2.29)	0.92(2.07)	4.31(2.73)	
	지역사회	45	9.68(6.99)	10.15(5.61)	7.07(4.97)	8.42(4.67)	6.95(4.26)	3.63(3.12)	1.98(2.13)	5.56(2.97)	2.29(3.15)	5.88(2.88)	
	전체	100	9.29(6.44)	9.56(5.58)	6.06(4.35)	7.35(4.62)	6.70(4.04)	2.63(2.75)	1.35(1.80)	4.03(3.27)	1.52(2.68)	4.94(2.71)	
90대	하나원	125	8.76(5.57)	9.62(5.14)	5.88(3.62)	6.77(4.64)	7.11(5.59)	2.46(2.67)	0.98(1.42)	4.05(3.18)	1.07(1.87)	4.64(2.46)	
	지역사회	143	8.86(7.15)	7.93(5.44)	6.25(5.24)	7.63(5.42)	6.87(4.31)	3.22(3.56)	1.77(2.17)	4.85(3.18)	2.05(3.43)	5.12(3.67)	
	전체	328	8.78(6.35)	8.31(5.25)	6.06(4.40)	7.14(4.90)	7.00(3.92)	2.76(3.01)	1.34(1.83)	4.40(3.20)	1.48(2.70)	4.85(2.76)	

부록 2. 성별, 연령 및 거주 상태에 따른 심리적 증상별 차이 변량분석 결과표

심리 증상	변량원	SS	MS	F	$\eta^2$	심리 증상	SS	MS	F	$\eta^2$
외상후 스트레스	성별(A)	419.17	419.17	12.21***	.03		264.88	264.88	8.71**	.02
	연령(B)	456.75	228.37	6.50***	.03		172.74	86.37	2.84	.01
	거주상태(C)	123.24	123.24	3.58	.01		115.17	115.17	3.79	.01
	A×B	46.61	23.30	.68	.00		125.56	62.78	2.07	.01
	A×C	123.65	123.65	3.60	.00	불안	79.73	79.73	2.62	.01
	B×C	293.07	146.54	4.27*	.02		267.15	133.58	4.39*	.02
	A×B×C	191.92	95.96	2.79	.01		140.07	70.03	2.30	.01
	오차	16209.85	34.34				14351.01	30.41		
	수정합	17786.69					15351.24			
우울	성별(A)	181.15	181.15	10.22***	.02		276.07	276.07	12.94***	.03
	연령(B)	75.78	37.89	2.14	.01		276.82	138.41	6.49**	.03
	거주상태(C)	166.51	166.51	9.40**	.02		180.90	180.90	8.48**	.02
	A×B	53.05	26.53	1.50	.01		15.83	7.92	.37	.00
	A×C	91.50	91.50	5.16*	.01	신체화	31.58	31.58	1.48	.00
	B×C	165.66	82.83	4.67*	.02		92.83	46.42	2.18	.01
	A×B×C	65.43	32.71	1.85	.01		26.02	18.01	.84	.00
	오차	8365.15	17.23				10070.86	21.34		
	수정합	9107.73					11046.58			
대인 예민	성별(A)	116.55	116.55	7.85**	.02		.02	.02	.00	.00
	연령(B)	165.02	82.51	5.56**	.02		95.73	47.86	5.71*	.02
	거주상태(C)	15.04	15.04	1.01	.00		130.77	130.77	15.60***	.03
	A×B	15.82	7.91	.53	.00		33.51	16.76	2.00	.01
	A×C	42.47	42.47	2.86	.01	분노	13.80	13.80	1.65	.00
	B×C	37.22	18.61	1.25	.01		28.73	14.37	1.71	.01
	A×B×C	49.78	24.89	1.68	.01		37.58	18.79	2.24	.01
	오차	7010.76	14.85				3956.82	8.38		
	수정합	7480.28					4237.22			
정신증 음주 문제	성별(A)	1.98	1.98	.68	.00		27.35	27.35	2.91	.01
	연령(B)	11.14	5.57	1.92	.01		2.80	1.40	.15	.00
	거주상태(C)	84.88	84.88	29.33***	.06		130.78	130.78	13.90***	.03
	A×B	1.93	.97	.33	.00	가족 문제	.71	.35	.04	.00
	A×C	1.43	1.43	.49	.00		10.59	10.59	1.13	.00
	B×C	20.66	10.33	3.57*	.02		13.06	6.53	.69	.00
	A×B×C	33.17	16.58	5.73**	.03		24.99	12.49	1.33	.01
	오차	1366.22	2.90				4441.88	9.41		
	수정합	1512.35					4678.20			
	성별(A)	271.15	271.15	35.33***	.07		4576.24	4576.24	6.48*	.01
	연령(B)	45.43	22.71	2.96	.01		7855.12	3927.56	5.56**	.02
	거주상태(C)	160.02	160.02	20.85***	.04		9369.98	9369.68	13.27***	.03
	A×B	.17	.08	.01	.00		1355.32	677.66	.96	.00
	A×C	10.92	10.92	1.42	.00	충점	2832.37	2832.37	4.01*	.01
	B×C	2.76	1.38	.18	.00		5294.11	2647.05	3.75*	.02
	A×B×C	2.42	1.21	.16	.00		3916.55	1958.28	2.77	.01
	오차	3622.84	7.68				333408.00	706.37		
	수정합	4077.00					365124.12			

주. 자유도: 성별=1, 연령=2, 거주 상태=1, 성별×연령=2, 성별×거주 상태=1, 연령×거주 상태=2, 성별×연령×거주 상태=2, 오차=472. \* $p<.05$ , \*\* $p<.01$ , \*\*\* $p<.001$ .